

##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의 효과와 개선방안: 사업 참여 청년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중심으로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성과평가를 목적으로 사업 참여 청년 5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함. 분석 결과, 사업 참여 청년은 '해당분야 직무탐색'을 주목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사업 참여가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였음. 또한,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에서 참여했던 직무 분야와 동일한 분야로 취업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고, 사업 참여 청년은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가 취업 후 '조직적응, 직무수행, 직무만족, 역량제고'에 미친 영향 역시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음. 따라서 향후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운영기관에서는 교·강사 및 프로그램 전문성을 높여야 하며, 참여기업은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다양한 참여기업 Pool을 확보해야 하고, 정부는 사업 홍보와 훈련 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01 분석의 필요성 및 분석 자료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참여 청년 지원 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최근 기업의 수시·경력, 능력중심 채용 트렌드 확산에 따라 청년의 직무 관련 일경험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음
- 이에 고용노동부는 청년의 일경험 기회 확대를 위해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을 도입, 양질의 일경험 프로그램 확산을 추진하고 있음
- 청년 일경험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청년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일경험 프로그램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성과관리 기반 마련이 필요함
- 따라서 이 글에서는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 참여한 청년 설문조사의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 정리하여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분석 자료: 고용노동부·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23년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 청년 설문조사**

- 조사 내용: 조사 내용 주요 문항은 응답자 기본특성(7문항), 참여 동기 및 향후 계획(4문항), 참여 후 취업 현황(11문항), 프로젝트 유형별 개선 필요 영역(2문항) 등 5개 항목으로 총 25개 문항으로 구성됨
- 조사 및 분석 대상: 2023년 고용노동부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한 청년 514명(조사응답자 기준)
  - 프로그램<sup>1)</sup> 참여유형으로는 '인턴형'이 62.8%로 가장 많았으며, 참여 경로는 'SNS, 인터넷 웹사이트 등을 통하여'가 41.2%로 가장 많았음
  - 직무 분야는 '경영·사무'가 18.3%로 가장 많았으며, 최종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47.3%로, 거주 지역은 '경기'가 24.7%로 가장 많았음

1)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의 세부 프로그램은 1)프로젝트형(기업제안형), 2)프로젝트형(청년주도형), 3)인턴형, 4)기업탐방형, 5)자율공모형으로 구분됨

**02 분석 결과**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 동기는 '해당분야 직무탐색'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청년 중 취업자의 대다수가 사업 참여가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함**

-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 동기 중 '해당분야 직무탐색'이 274건(30.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후 '직장 생활 경험' 239건(26.5%), '전공관련 진로설계' 208건(23.1%), '직무역량 향상' 174건(19.3%)의 순으로 집계됨

표 1 |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 동기(중복응답) (단위: 건, %)

구분	직장 생활 경험	전공관련 진로 설계	해당분야 직무탐색	직무역량 향상	기타
사례 수(비율)	239(26.5)	208(23.1)	274(30.4)	174(19.3)	7(0.8)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 직무와 사업 참여 후 취업 직무와의 일치도가 높게 나타남**

-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 후 취업 여부를 묻는 질문에 '예' 58건(11.3%), '아니오' 456건(88.7%)으로 집계됨
-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 후 취업한 58명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이 취업에 도움되는 정도에 대한 응답은 '매우 그렇다' 27건(46.6%), '그렇다' 24건(41.4%), '보통이다' 6건(10.3%), '그렇지 않다' 1건(1.7%)의 순으로 집계됨

표 2 |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 후 취업 여부(종합) (단위: 건, %)

구분	예	취업에 도움 정도					아니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사례 수(비율)	58(11.3)	27(46.6)	24(41.4)	6(10.3)	1(1.7)	-	456(88.7)

-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한 직무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건수는 46건(79.3%)이며, '아니오'는 12건(20.7%)으로 집계됨
  - 세부 프로그램에서는 인턴형의 사례 수(39건)가 가장 많았으며, 기업탐방형(1건)과 자율공모형(1건)의 사례 수가 가장 낮았음

표 3 |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 직무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참여 유형별) (단위: 건, %)

구분	예	아니오	소계
	사례 수(비율)	사례 수(비율)	사례 수(비율)
프로젝트형(기업제안형)	3(100.0)	-	3(100.0)
프로젝트형(청년주도형)	2(66.7)	1(33.3)	3(100.0)
인턴형	39(78.0)	11(22.0)	50(100.0)

(표 계속)

구분	예	아니오	소계
	사례 수(비율)	사례 수(비율)	사례 수(비율)
기업탐방형	1(100.0)	-	1(100.0)
자율공모형	1(100.0)	-	1(100.0)
합계	46(79.3)	12(20.7)	58(100.0)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가 취업 후 직무 전반에 대한 만족 및 역량 제고에 도움을 주었다고 인식함

-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가 취업 후 조직적응에 주는 도움 정도에 대한 질문에 '높음'이 24건(41.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매우 높음' 20건(34.5%), '보통' 12건(20.7%), '낮음' 2건(3.4%)으로 집계됨
-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가 취업 후 직무수행에 주는 도움 정도에 대한 질문에 '높음'이 22건(37.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매우 높음' 18건(31.0%), '보통' 16건(27.6%), '낮음' 2건(3.4%)으로 집계됨
-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가 취업 후 직무만족에 미친 영향 정도에 대한 질문에 '높음'이 23건(39.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매우 높음' 18건(31.0%), '보통' 17건(29.3%)으로 집계됨

표 4 |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가 조직적응, 직무수행, 직무만족에 미친 영향(종합, N=58)

(단위: 건, %)

구분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사례 수(비율)	사례 수(비율)	사례 수(비율)	사례 수(비율)	사례 수(비율)
조직적응	-	2(3.4)	12(20.7)	24(41.4)	20(34.5)
직무수행	-	2(3.4)	16(27.6)	22(37.9)	18(31.0)
직무만족	-	-	17(29.3)	23(39.7)	18(31.0)

-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 전후 역량 수준은 참여 전 평균 54.0점에서 참여 후 평균 76.4점으로 4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프로그램 유형별로는 자율공모형에 참여한 청년들의 역량 수준은 참여 전 평균 50.0점에서 참여 후 평균 90.0점으로 8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프로젝트(기업제안형)(50.0%), 인턴형(42.9%), 프로젝트(청년주도형)(17.4%), 기업탐방형(16.7%)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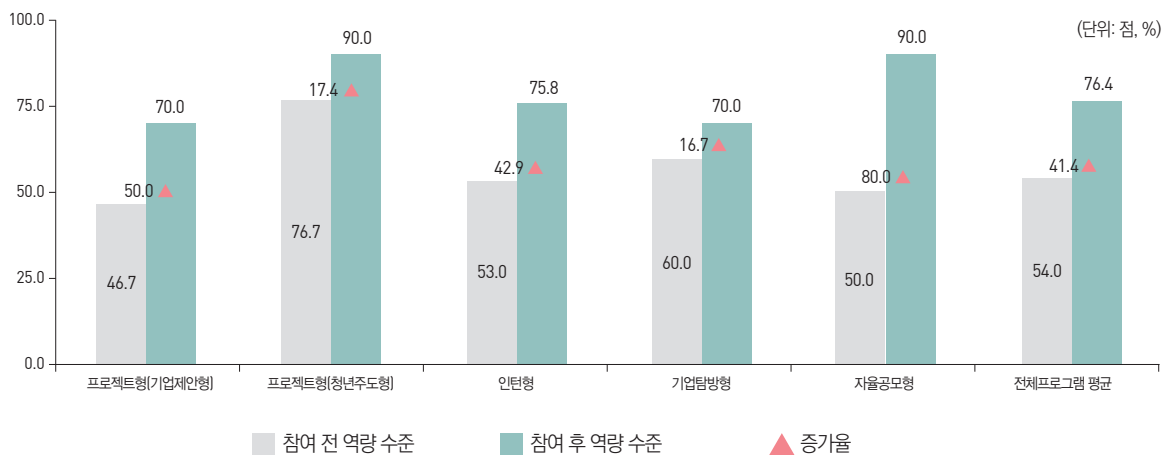


그림 1 |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 전후 역량 수준(프로그램 참여 유형별, N=57)

주: 1) 무응답 1명

2) 100점 만점 기준(0점: 업무 수행을 위한 지식 및 기술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함, 100점: 수행 업무에 대한 탁월한 지식 및 기술 보유를 넘어 가치 창출 및 혁신을 달성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3) 증가율: [(참여 후 역량 수준-참여 전 역량 수준)/참여 전 역량 수준] × 100

- 직무 분야별로는 영업·해외영업 분야는 참여 전 평균 35.0점에서 참여 후 평균 73.3점으로 10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연구·R&D(45.8%), 생산·제조(45.2%), 광고·마케팅(44.2%), 기타(38.3%), 경영·사무(32.8%), 공공행정(26.5%), IT(22.6%)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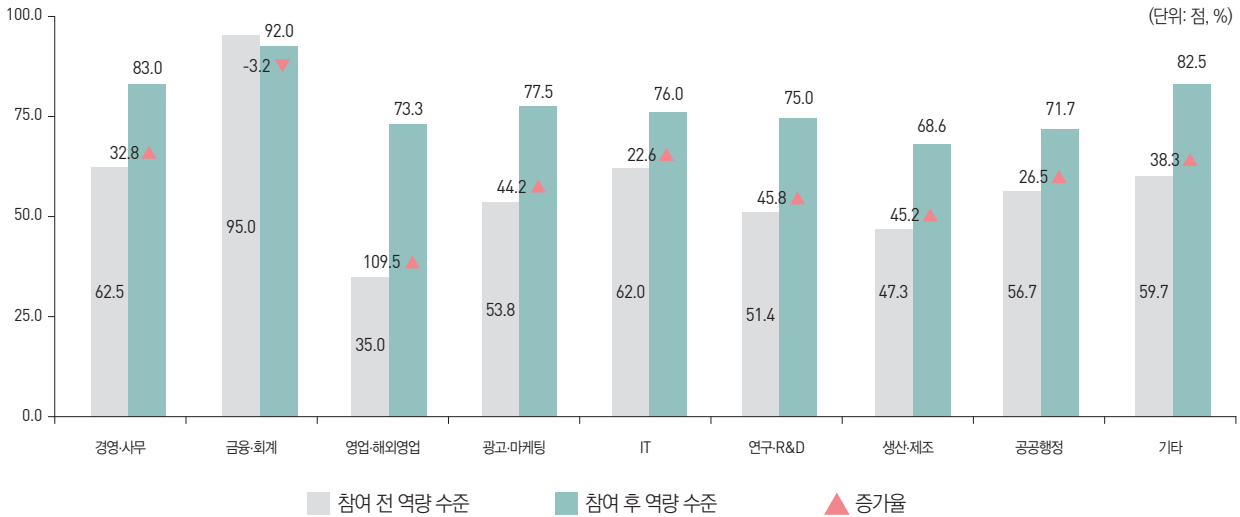


그림 2 |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 전후 역량 수준(직무 분야별, N=57)

주: 1) 무응답 1명

2) 100점 만점 기준(0점: 업무 수행을 위한 지식 및 기술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함, 100점: 수행 업무에 대한 탁월한 지식 및 기술 보유를 넘어 가치 창출 및 혁신을 달성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3) 증가율: [(참여 후 역량 수준-참여 전 역량 수준)/참여 전 역량 수준] × 100

### 03 시사점

-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은 청년의 취업 및 직무 수행에 도움을 주고 있고 이에 따른 직무 만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입사 후 조직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다만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의 경우 프로젝트 주제 선정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다양한 참여기업에 소속되어 인턴 활동을 진행하기 때문에, 참여 청년별 균일한 품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없는 것이 주요 개선사항으로 나타남
  - 따라서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프로젝트형 사업의 경우 팀 내 목표 달성을 위해 프로젝트 진행 방법 및 세부 과제, 팀 내 업무 분장을 공식화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인턴형은 참여기업의 교육생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절차 및 방법 등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나아가 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참여기업의 양적 증대와 참여기업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청년의 다양한 진로 계획에 부합하기 위해 참여기업의 수 증가와 다양한 업종의 참여기업 확보, 참여기업 및 청년의 관계 향상을 위한 정기적 미팅(회의체) 등 교류 방안 마련이 요구됨
- 향후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운영기관에서는 교·강사 및 프로그램 전문성 확보, 참여기업은 적극적인 참여, 정부는 사업예산 확대 등으로 청년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